

# 남원,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 시, 부서간 협의 기간최소화 민원실무회 도입 운영 계획

남원시 관계자는 시가 지난해 인허가 민원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한 결과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율은 54.4%이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95.6%로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된 성과는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의 공약사항인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질적 민원 처리 기간 일제정비, 신속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해 효율적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자체 제작, 민원인, 용역업체 등에 배부해 민원처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민원처리 알뜰톡 시스템을 구축해 진행상황(접수, 보완, 협의, 완료)을 단계별로 민원인과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 민원인들의 궁

금증 해소와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특히 완료된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도 병행해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4년에는 복합민원 협의절차 개선으로 부서간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온라인 민원실무회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권혜정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2024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 내달 16일까지... 1200명 대상 12개 읍·면 순회 교육 실시

임실군이 한 해 농사의 첫걸음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

군은 15일을 시작으로 2월 16일까지 20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 1,2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실시되며,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영농 신기술 보급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실용교육은 교육수요가 가장 많은 벼를 중심으로 지난해 영농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고품질 안정 생산 핵심기술, 농가 경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강사들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변화된 농업정책을 연계하여 공익직불제 교육, 탄소중립 실천 교육, 농약 안전 사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등을 안내한다. 변화하는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사진=임실군청 제공)

농업 여건에 대응하며,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영농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전라작목으로 감자와 마늘, 양봉, 호두, 양파, 고구마, 고추 7개 과목을 선정하고 각 분야 내·외부 전문가 강사를 초빙,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재배관리, 병해충 관리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심 민 군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

육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만큼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며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농업인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gri.imsil.go.kr)에서 확인하거나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063-640-2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남원시가 오는 1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기간에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날 말까지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차량은 정기분 부과 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중 4회(1월, 3월, 6월, 9월) 시행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4.58% 세액공제를 받고 2025년 이후에는 2.75%로 축소 변경되고,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지 않거나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음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의 진정한 맛을 느껴보세요'

### 순창맛페스타, 20~21일 순창 발효테마파크 일원서 개최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순창의 진정한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순창맛페스타'가 열린다.

'순창맛페스타' 행사는 순창의 맛과 문화를 완벽하게 담아낸 특별한 체험의 장으로, 우석대와 전주대 RFS사업단과 한국의식업중앙회 순창군지부,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손을 잡고 순창의 12가지 맛과 관광을 결합하여 맛의 고장 순창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중심 테마 공간인 매편에서는 '순창의 12가지 맛'이라는 컨셉으로 순창고추장불고기, 순대국밥, 순창곰탕 등 12가지 순창만의 특색있는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미생물캐릭터를 이용한 마키롱 만들기, 순창딸기 설기케이크만들기 등 다양한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한국의식업중앙회 순창군지부에서는 다슬기탕, 청국장 등 순창의 5가지 음식을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편 앞 야외 공간에서는 투명한 이글루 텐트를 설치하고 겨울 간식인 호빵, 어묵 등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들이 캠핑분위기를 느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사 첫날인 토요일에는 매편 관 중앙홀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순



창에서 즐기는 흥파티라는 컨셉으로 와인 시나몬, 과일 등을 곁들여 만든 음료인 뽕소를 판매하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도 펼쳐진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순창맛페스타'를 통해 순창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가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창의 맛과 관광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행사 확대를 통해 미식관광을 활성화하여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순창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과수 화상병 예방 사전 관리 당부

임실군이 과수 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겨울철 과수원 전정 관리 및 병해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며, 홍보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사과·배·모과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 등에 광범위하게 발병한다. 화상병의 대표적인 피해증상으로는 줄기·가지가 표방이 모양으로 굽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며 잎의 경우 물에 데친 듯한 수침상 흑갈색 병반과, 엽맥을 따라 병반이 진전되어 적·흑갈색으로 고사하게 된다.

과수 화상병 발생 시 감염된 나무를 매몰한 후 과수원을 폐원하고 2년간 기주식물 재배가 제한되므로 농가들의 주의를 요하는 국가검역 병해다.

이 병은 비·비람, 곤충류, 농기구, 사람 등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원 관리 방법으로 △과수원 출입 전·후 소독 등 과수원 청결 관리 △월동기 케양 제거 실시 및 절단 부위 소독약 도포 △경작자가 가급적 전지·전정을 실시하고 외부 인력 작업 시 작업 도구 소독 철저 △농작업 도구·작업복 등을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 △과원 작업 후 농작업일지 기록 등이다. 특히, 전지·전정 시 가지나 줄기에 화상병세균 월동체인 케양 증상(가지가 적갈색·흑갈색을 띠며 부풀어 오르거나 틀어지거나 내려앉은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절단하여 철저한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심 민 군수는 "화상병은 겨울철 전지·전정 과정 중 사람 및 작업 도구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과수원 청결 관리를 통해 화상병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소방서 "일반인의 적극적 심폐소생술 중요"

남원소방서(서장 박원)가 겨울철 심·뇌혈관질환과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인의 적극적 심폐소생술을 강조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급속도로 수축되면서 혈액 농도가 짙어져 봄철에 비해 심장질환 발병률도 높아지며,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즉시 심폐소생술(가슴압박)을 시행한다면 높은 생존율(1분내 95%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1단계) 환자 의식 및 호흡확인 (2단계) 119신고 및 도움 요청 (3단계) 구급차 도착시까지 가슴압박 실시이며, 가슴압박시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손가락을 낀 두 손을 올리고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때 압박깊이는 성인 5cm, 소아 4cm 깊이로,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서약식 개최

순창군이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9명이 참석한 청렴 서약 및 결의를 다졌다.

이번 청렴서약식은 최영일 군수의 군정 비전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실현하기 위해 선 고위간부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과 반부패 청렴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마련됐다.

주요 서약내용은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준수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다짐과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및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